

사우디 비전 2030의 주요 내용과 평가

- 사우디아라비아 부왕세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(Mohammad Bin Salman)은 4월 25일 국가 개혁 프로그램인 사우디 비전 2030을 발표하였음.
- 비전 2030은 경제 다각화, 민간 부문 개발,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 등을 통해 석유 의존적 경제 구조를 탈피하고 정치, 경제, 사회 및 종교 등의 전 영역에 걸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.
 - 비전 2030의 개발 재원은 국영 석유기업인 사우디 아람코 기업공개를 통한 지분 매각, 현재 1,600억 달러 규모의 공공개발펀드(Public Investment Fund)를 2조 달러로 확대하는 것 등을 통해 마련하고자 함.

표 1. 사우디 비전 2030의 영역별 주요 목표

3대 영역	주요 목표
활기찬 사회	<p>연간 수용 가능 순혜객 수: 8백만→3천만</p> <p>UNESCO에 등재된 사우디 문화유산을 현 수준의 2배로 확대</p> <p>세계 100대 도시 안에 3개의 사우디 도시 인정</p> <p>가구 소비 중 문화 및 여가 지출 비중 2.9%→6%</p> <p>주 1회 이상 운동하는 개인의 비중 13%→40%</p> <p>사회적 자본 지수 순위: 26위→10위</p> <p>평균 기대수명: 74세→80세</p>
번영하는 경제	<p>사우디 전체 실업률: 11.6%→7.0%</p> <p>중소기업의 GDP 비중: 20%→35%</p> <p>여성의 노동력 참여: 22%→30%</p> <p>세계 경제규모 순위: 19위→15위</p> <p>석유 및 천연가스 부문 자국화 비중: 40%→75%</p> <p>PIF 자산: 6천억 리알→7조 리알</p> <p>국제 경쟁력 지수: 세계 25위→10위</p> <p>외국인 직접투자의 GDP 비중: 3.8%→5.7%</p> <p>민간 부문의 GDP 비중: 40%→65%</p> <p>물류성과지수: 49위→25위, 역내 1위</p> <p>비석유 부문 수출의 비석유 부문 GDP 비중: 16%→50%</p>
대망을 가진 국가	<p>비석유 부문 정부 재정 수입: 1,630억 리알→1조 리알</p> <p>정부 효율성 지수: 80위→20위</p> <p>전자정부 평가: 36위→세계 5위 권</p> <p>가계 소득 중 저축 비중: 6%→10%</p> <p>비영리 부문의 GDP 비중: 1% 미만 →5%</p> <p>자원봉사자 결집: 11,000명→1,000,000명</p>

자료: Saudi Vision 2030. Vision. Goals <http://www.vision2030.gov.sa/en/goals> (검색일: 2016. 5. 10).

KIEP 동향세미나

- 비전 2030 발표 이후 알 나미미 석유부 장관을 무함마드 부왕세자의 최측근이자 왕족 출신 아람코 회장인 칼리드 알 팔리흐로 교체하고, 부서명도 에너지산업광물자원부(Ministry of Energy, Industry and Mineral Wealth)로 바꾸면서 개혁 속도를 높이고 석유뿐만 아니라 에너지·산업 전반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.
- 사우디 비전 2030은 대외적으로는 국제유가 하락 및 이란의 역내 정치·경제 패권으로 부상하는 것에 대한 견제, 대내적으로는 높은 실업률 해소 및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요구 해결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함.
- 사우디아라비아의 GDP, 정부 재정 수입에서 석유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1.8%, 87.4%로 높으며, 최근 30~40달러대에 머무르고 있는 국제유가는 재정 수지 악화, 외환보유고 감소, 성장 둔화 등으로 연결됨.
- 제재 해제 이후 이란이 EU, 중국 등과의 경제 협력 확대를 통해 국제사회로 복귀하면서 사우디는 역내 정치 및 경제 패권국의 지위를 두고 이란과 경쟁하고 있으며, 이에 대한 대응으로 비전 2030을 통해 국제적인 관심을 이끌어내고자 함.
- 이와 함께 28.7%에 달하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 및 고학력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사우디인 의무고용제도 강화와 함께 비석유·민간 부문의 성장,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등이 장기적인 해결책이라는 인식이 확대되었음.
- 비전 2030은 사회 전반에 걸친 강력한 개혁 계획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이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.
- 비전 2030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최근 지지부진한 개혁과 저유가 장기화에 따른 신성장동력 마련이 시급한 시점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청사진을 발표한 점과 가장 핵심적인 기업인 아람코를 민영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.
- 그러나 아람코 IPO를 제외하고 경제 다각화, 외국인 투자 확대, 민간 부문 개발 등은 기존에 발표된 개발 계획과 많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.
- 지나치게 낙관적인 재원 마련 목표, 구체적인 이행 계획 부족, 자국민에 유리한 현 노동 및 외국인 투자 제도에 대한 개선 불투명성, 정부의 과도한 복지에 익숙한 국민의 반발 등으로 계획의 이행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임.

<자료: SAMA, Financial Times, Vision 2030, Arab News 등>

손성현 (KIEP 아중동팀 전문연구원)

EMERiCs의 사전 동의 없이,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동향세미나의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. 본 동향세미나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연구진 본인에게 있으며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.